순창제일고, 자공고 2.0 공모 선정

〈자율형 공립고〉

도내 총 8개교 지정돼… 지역사회기관과 연계 특화교육과정 편성 · 운영

순창제일고등학교 전경

순창제일고등학교가 교육부의 자율형 공립고 2.0 3차 공모에 선정됐다.

이에 따라 전북에서는 지난 7월 선정된 7개교를 포함해 총 8개교가 지정됐다.

자율형 공립고 2.0은 지역사회기관(협약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을 바탕으로 학생 진로·적성에 따른 과목 선택권 보장을 위한 특화교육과정 및 교원의 역량 제고 등을 통해 지역 교육력 제고 및 정주 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20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에 따르면 순창제일고는 자공고 2.0 운영학교 지정으로 향후 5년 동안 매년 2억 규모의 재정 지원과 특목고 수준의 교육과정 자율성 부여, 교장공모제 실시, 교사 정원 100%까지의 초빙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이를 통해 2025년 3월 1일부터 발효 바이오 및 농생명 산업 지역인재 양성 교육과정을 중점적으로 운영, 지역 연계 특화교육과정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의 학교와 상생하는 교육과정을 구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순창제일고를 포함해 이번에 지정된 자율형 공립고 2.0으로 선정된 8개교가 지역 사회의 특색을 반영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공교육 혁신을 선도하는 우수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지역 내 다른 공·사립고등학교와 함께 지역 교육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e-복지관 아동청소년 복지팀, 여가부장관상 수상

전주대학교 e-복지관 아동청소년복지팀이 '2024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 활동 어워즈'에서 여성가족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이에 따르면 이 행사는 청소년들의 사회봉사 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지역사회 참여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매년 열리고 있다.

이에 전주대학교 e-복지관 아동청소년복지팀은 아동·청소년의 진로탐색과 집단놀이 프로그램 등을 기획, 지역사회 내 청소년 기관과 연계해 진행한 봉사활동이 인정을 받았다.

전주대학교 e-복지관 아동청소년복지팀은 "이번 수상을 통해 지역사회 내 아동·청소년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장은성 기자

전주기전대, 고교생 대상 취업역량 강화 캠프 진행

전주기전대학 산학협력단(단장 조덕현)은 지난 18~19일 이틀간 장항공업고등학교 2~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취업역량 강화 캠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캠프는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실전 취업 역량을 향상시키고, 학생들의 취업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자 마련됐다.

2일 간 진행된 캠프에서는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컨설팅, 면접 대응 전략과 커뮤니케이션 스킬 특강을 통해 학생들은 자기소개서 작성법과 면접 시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한 대응 전략을 실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특히, 학생들은 맞춤형 이력서 작성법과 자기소개서 개선 팁을 전문가와 함께 실시간으로 점검하며, 면접 준비의 자신감을 높였다.

마지막 시간에는 힐링 프로그램이 진행, 학생들이 취업 준비 과정에서 느낄 수 있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취업에 대한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을 보냈다.

이 프로그램은 서천군 특화전문인재양성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기획, 관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조덕현 단장은 "이번 캠프는 학생들에게 실제 취업을 위해 필요한 기술과 자기 표현 방법을 익힐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지역 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학생들에게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구직자들이 지역 내에서 안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은성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수원은 20일 본청 2층 강당에서 실사구시 연수 운영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교직원 역량 강화로 전북교육 미래 설계

전북교육연수원, 실사구시 연수 운영 공청회… 교육의 질적 도약 '첫 걸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수원(원장 민완성)은 20일 본청 2층 강당에서 실사구시 연수 운영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는 교직원의 전문성 향상과 학력신장에 기여할 수 있는 연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전북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원들의 수업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이날 공청회에는 초·중등 교사, 수석교사, 교장(감), 교육행정직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해 교직원 연수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향후 발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혜경 교육연수원 교수부장이 '교직원의 연수가 전북교육의 미래를 바꾼다'라는 주제로 2025년 교직원 연수 프로그램 개편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주요 개편 내용은 △수업개선 중심의 연수 △생애주기별 맞춤형 연수 △현장 맞춤형 연수 확대 △연수 결과 평가 및 환류 시스템 △직급별 맞춤형 연수 △AI 시대를 대비한 연수 △전산 실무 역량 강화 등이다.

이어 정영식 전주교대 교수를 좌장으로 한 토론이 펼쳐졌다. 토론자로는 채선영 정책기획과장이 '배움과 성장을 더하는 전문성 신장 연수', 최은주 교육연수원 전문관이 '역량과 실력을 키우는 현장맞춤 연수', 김호경 금마초등학교장이 '미래를 여는 지속 가능한 생애주기 연수', 오진희 양현고 수석교사가 '만족과 감동을 채우는 공감 연수'를 주제로 각각 나섰다.

민완성 원장은 "교직원의 연수는 전북교육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중요한 요소"라며 "이번 공청회가 교직원의 연수 프로그램을 혁신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올바른 저탄소 식생활' | 제6회 행복한 학교급식 공모 수상자 발표

5개 분야 총 796점 응모

캠페인 사진부문 대상을 수상한 김현지(한별고)作 '올바른 저탄소 식생활'(사진 왼쪽)과 최우수상을 수상받은 장한별(이리남중)作 '질좋은 식재료, 맛과 영양을 챙기는 사계절 급식'. 〈사진=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제공〉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제6회 행복한 학교급식 공모전' 수상작을 선정·발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기후위기 대응 및 지속가능한 생태 환경급식을 위한 교육공동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학교급식에 대한 인식전환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진행됐다.

공모 결과 그림일기, 포스터, 슬로건, 캠페인 사진, UCC 등 5개 분야에서 총 796점이 접수됐다.

분야별 대상은 △그림일기 문태영(이리영등초 1) △포스터 조은재(이리서초 4)·이은채(이리남중 2) △슬로건 강지윤(신림중 3) △캠페인 사진 김현지(한별고 2) △UCC 오산남초(이예솔·이예주·김유하)가 차지했다.

이들에게는 교육감상과 상금 또는 문화상품권이 주어지며, 수상작은 바른 식생활 교육 및 학교급식 홍보 전시 등에 활용된다.

이서기 문예체건강과장은 "학교급식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학생들의 건강은 물론 환경까지 생각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비전대, 이차전지 신산업분야 선도 전문대학사업단 현판식

관련 학과 운영체제 구축 등 추진

전주비전대학교(총장 우병훈) 20일 신산업분야 특화선도전문대학 지원사업 2.0 현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전주비전대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과를 중심으로 전북 특화산업 수요맞춤형 이차전지 제조·조립 공정 전문기술인력 양성 체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이번 사업 시행으로 △이차전지 관련 학과 운영체제 구축 △한국폴리텍대학(전북) 교류협력 체계 구축 △신산업 교육과정 개발·운영(SLC 특화교육) △혁신적 교수학습법 개발 및 적용, 학사제도 개선, 교원 역량 강화 등을 통한 교육효과 제고 △교육환경 개선 및 산·학·연·관 연계 다양한 활동을 통한 이차전지 전문기술 인력 양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장은성 기자

"환자 삶의 질 높이는 의학분야 연구"

전북대 김정렬 명예교수, 대한골연장변형교정학회장 취임

전북대학교 김정렬 명예교수(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사진)가 대한 골연장변형교정학회 신임 회장에 취임했다. 김 회장의 임기는 내년 11월까지 1년이다.

대한 골연장변형교정학회는 선천성 질환 및 외상으로 발생하는 근골격계 변형의 교정과 골연장 분야에서 진료와 연구 발전을 목표로 1992년에 창립된 학회다.

특히, 이 학회의 회원들은 소아청소년과 장애인 근골격계 변형을 치료하는 필수의료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돼 소아 정형외과 및 장애 치료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20일 전북대에 따르면 김정렬 신임 회장은 소아 및 종양 정형외과 분야의 권위자로, 전북대 의과대학에서 20여 년간 교수로 재직하며 후학 양성과 연구 활동에 기여해 왔다. 2023년 4월 명예퇴직 후 '김정렬 키본정형외과마취통증의학과'를 개원해 지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힘쓰고 있다.

김 회장은 다양한 연구 활동을 통해 국내외 학회지에 120여 편의 논문을 발표했으며, 유럽소아정형외과학회 최우수논문상, 대한정형외과학회 우수논문상, 대한정형외과연구학회 우수논문상,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대한소아정형외과학회 최우수논문상 등 다수의 상을 수상했다.

또한 대한근골격종양학회장, 대한정형외과학회 영문학회지 편집부위원장, 교과서 편찬위원, 수련교육위원, 고시위원, 학술상 심사위원, 대한골대사학회 호남지회장 등을 역임하며 정형외과학 발전에 이바지해왔다.

김정렬 신임 회장은 "근골격계 변형과 골연장 분야는 환자들에게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의학 분야"라며 "앞으로 학회가 관련 연구와 치료 기술의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학교 공공인재학부는 지난 19일 오후 글로벌인재관 공공인재학부 10주년 기념홀에서 서거석 교육감 초청 특강을 개최했다.

전북대 공공인재학부, 서거석 교육감 초청 특강

전북대학교 공공인재학부(학부장 정태종)는 지난 19일 오후 글로벌인재관 공공인재학부 10주년 기념홀에서 서거석 교육감 초청 특강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강연에는 공공인재학부 구성원과 재학생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특강에서 서 교육감은 "RISE 사업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대학 지원체계를 구축해서 지역인재들이 정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것"이라며 "공공인재학부 학생들이 RISE 시대에 다양한 전문직역에서 전북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지역사회의 리더로 성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강에 참석한 최은서 학생(공공인재학부)은 "오늘 강연을 통해 교육감님이 열정을 갖고 전북 교육 대전환을 이뤄내고 있는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며 "전북대의 변화와 혁신 사례를 듣고 나 역시 다시 한 번 꿈을 확립하고 열정을 다해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된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서거석 교육감은 전북대학교 제15대·제16대 총장을 지냈다. 현재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으로 지역교육에 헌신하고 있다. 2019년 공공인재학부 제1호 명예동문으로 위촉된 바 있다. /장은성 기자

에코비트워터, 전주대 토목환경공학과에 발전기금

전주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는 지난 19일 국내 최대 종합환경기업인 ㈜에코비트워터로부터 발전기금 500만원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발전기금 전달식에는 ㈜에코비트워터 김상남 상무, 문재철 지사장, 오강현 소장과 전주대 토목환경공학과 교수진, 윤찬영 대외부총장, 김은수 공과대학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상남 상무는 "이번 발전기금을 통해 토목환경공학과가 더욱 발전하고, 나아가 상호 교류가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영민 학과장은 "이번 ㈜에코비트워터에서 전달해 준 소중한 기금은 토목환경공학과가 필요로 하는 분야에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22일 2차 김제시 산업발전 위한 3D프린팅 세미나

전주대학교 RIS 사업단은 오는 22일 오후 2시 전주 그랜드힐스턴 호텔에서 '2차 김제시 산업발전을 위한 3D프린팅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전주대학교 기계공학과와 김제시가 RIS 자율과제인 '김제시의 다품종 소량생산 산업 지원을 위한 3D 프린팅 기술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이번 세미나는 △3D프린팅 기술: 최신 연구 동향과 산업 적용 사례 △3D프린팅과 스마트제조혁신 프로젝트 △자동차 분야 3D 프린팅 기술 적용 사례에 대한 주제 발표가 이뤄질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